



'2019 군산문화제야행'이 오늘부터~4일, 16~18일 2회에 걸쳐 근대역사박물관 및 월명동 일원에서 개최된다.

오늘 밤은 군산夜行으로!

근대역사박물관 · 월명동 일원서 색다른 볼거리 제공

한여름 밤 무더위를 식혀 줄 시원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2019 군산문화제야행(夜行)'이 오늘부터~4일, 16~18일 2회에 걸쳐 근대역사박물관 및 월명동 일원에서 개최된다.

첫째주와 셋째주 금~일요일에 펼쳐지는 야행은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발굴되지 않은 근대역사문화의 중심 도시 군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군산. 하지만 군산은 한강 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으로 항쟁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시다.

군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자리매김한 근대역사박물관과 월명동 일원에서 펼쳐지는 '군산문화제야행(夜行)'은 역사를 통해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전국의 문화제 야행을 대표하는 '군산문화제야행'

문화제야행은 문화제가 밀집된 지역을 거

점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통해 야간에 다채로운 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제 전시·관람 및 답사, 다양한 테마공연 및 체험 등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연속 전국 최고 규모로 문화제야행사업 국비 지원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전국 대표 야행으로서의 진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군산문화제야행에서 만나는 80(夜) 테마 프로그램

야간에 손님을 맞이하는 군산문화제야행은 여덟 가지의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행사장을 찾는 이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보인다.

80(夜)는 ▲야로(夜路)-밤에 걷는 문화유산의 빛의 거리 ▲야사(夜史)-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역사 이야기 ▲야화(夜話)-한여름 밤에 보는 문화유산의 정취 ▲야설(夜說)-밤에 펼쳐지는 문화공연 ▲야경(夜景)-밤에 비춰보는 아름다운 군산의 문화유산 ▲야식(夜食)-밤에 즐기는 맛의 거리 ▲야숙(夜宿)-군산 역사 이야기 속 하룻밤 ▲야시(夜市)-근대역사가 살아있는 문화장터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야간형 콘

텐츠 기반 조성

근대역사박물관에서 동국사까지 2km에 이르는 구간에 청사초동을 설치한 빛의 거리를 확대 조성했으며, '영화의 거리'에 추가 조성된 경관조명과 근대역사박물관에 설치된 투미나리에는 군산의 밤거리를 환하게 밝혀준다.

또 (구)조선은행, (구)일본제18은행, 신홍동일부식가옥, 동국사 총 4곳의 문화제에 설치된 야간경관조명은 문화제의 특색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야행기간 곳곳에 설치된 스토리가 있는 유등조형물은 사진 촬영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제를 활용한 다양한 야간 전시·공연·체험 마련

문화제야행은 군산 시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제를 개방하고 개방된 문화제 안에서 지역의 예술단체와 시민,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는 80여개의 전시·공연·체험 문화콘텐츠가 운영된다.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 분포한 다양한 지역 문화유산들을 각 거점으로 연계해 문화유산이 가득한 거리를 거닐며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두양수 시 문화예술과장은 "군산문화제야행은 일제 강점기 항쟁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기며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국의 대표적인 야간형 문화 콘텐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완주군, 50세 이상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10명 모집

완주군이 신중년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전문 지도사를 모집한다.

1일 완주군은 '2019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전통놀이 전문 지도사 1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5060세대를 지칭하는 신(新)중년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번에 군에서 선정된 사업은 '전통놀이 지도사 활동지원 사업'으로 전통문화놀이, 민속놀이, 전래놀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건전한 놀이문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만 50세 이상 완주군민 중 전통놀이전문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공고

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주군에 있는 자이다.

사업 참여자는 1일 7시간 주5일간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4대 보험 포함 월 130만 원 정도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완주군청 문화관광과(관광진흥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전영선 문화관광과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어 이들이 가진 경력·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중년들에게는 고용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북교통방송, 오늘부터 휴가철 교통정보 실시간 방송 실시

TBN전북교통방송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늘부터 4일까지 사흘간 'TBN 여름 휴가 교통특별방송'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송은 도내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의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 하도록 휴가 분위기에 맞춘 특화방송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 중계차와 통신원, 리포터 등의 방송 인력을 주요 도로에 배치해 프로그램마다 신속·정확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각 편성 프로그램마다 여름 휴가에 맞는 코너를 만들어 장거리 안전운전과 건전한 휴가문화, 피서지 주의사항 등을 전달해 안전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방침이다.

이성원 전북본부장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을 위해 이번 교통특별방송을 마련했다"면서 "전북 주요 피서지를 찾는 휴가객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전달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김제문화예술회관서 광복 74주년 8·15 기념 음악회 개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광복 74주년을 기념해 '아! 대한민국'의 가수 정수라와 아리랑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강민석의 지휘로 감동과 열정의 무대를 선보인다.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등 클래식 명곡을 주축같은 목소리의 주인공 소프라노 김은혜와 테너 김남표가 협연하고,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환희, 우리 둘이, 업고 업고(Up go, Up go!) 등 히트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광복 74주년을 기념하고,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클래식의 선율과 가곡의 하모니, 한국인의 애정곡 아! 대한민국으로 모두가 애국심을 느끼며 행복해지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관련된 예매는 6일 오전 8시부터 김제문화예술회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 순 판매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